광주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자 대거 적발

분양권 불법 전매·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104명

市, 국토부와 정밀조사…국세청 통보·형사처분

광주시는 13일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자 10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한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 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 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 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불법 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한다.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이다. 동구 77건, 서구 129건, 남구 160건, 북구 136건, 광산구 218건 등이며 대상 인원 2천95명이다.

유형별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한 12건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전남지사 품질인증' 209개 품목 선정

3년간 상표 사용…엄격한 품질관리 소비자 신뢰 확보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전남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심의회를 통해 62개 업체 209개 제품을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으로 선정했다.

'전남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품목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은 전남산 원료 사용 여부와 안전성, 품질 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뽑았다.

새롭게 우수성을 인증받은 제품은 여수 돌산버섯영농조합법인의 노루궁뎅이버섯즙과 순천 쌍지뜰㈜의 감태영양누룽칩, 나주 두레박협동조합의 명인나주곰탕, 영광 성광굴비의 고추장굴비 등 209개 제품으로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전남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남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각 업체 별로 디자인 개선 제작비 1천만원과 식품 자가품질검사비 2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 농·수·축산물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전남지사 품질인증 제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용산역과 광주 유·스퀘어에 LED 광고물을 설치, 홍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인증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판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입점 등을 통한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로 도내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인증 제품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전남도가 인정한 우수 농·수·특산물을 믿고 많이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22일까지 민간기관 지원 사업 수요조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13일 민간기관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기관 지원사업이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 등 현장의 실무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회복지현장 수요 조사와 더불어 복지 영역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욕구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민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호권 원장은 "민간 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사회 복지 현장의 욕구에 부합한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 이용섭 광주시장이 13일 오전 남구 아동양육시설인 노틀담형제의 집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와 거주 아동들을 격려한 뒤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시 제공〉

코로나·집중호우 피해 지방세 대폭 지원

광주시 지난해 지방소득세 등 연장…6만여건 429억 규모

광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기한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등 6만1천325건, 429억원 규모의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지난해 5월말에서 8월말로 기한 연장했다.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한 결과 총 199건(54억원)을 지원했다.

또 자치구 의회 감면안 의결 동의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 대해 총 610건, 8천300만원의 재산제를 감면했다. 동구 75건, 서구 162건, 남구 100건, 북구 128건, 광산구 145건 등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돼 대체 취득한 경우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총 1천795건, 8억6천만원의 세금을 감면했다.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도 함께 실시해 50건, 3천1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대해 지방세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지원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국내 AI기업 광주행은 올해도 계속된다

市, 5개 전문기업과 'AI비즈니스 기반 조성' 업무협약

광주시는 13일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66-70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인공지능 전문기업은 ㈜데이터스트림즈, ㈜두원메디텍, ㈜아이크로진, ㈜참좋은넷, ㈜파인씨엔아이 등으로 앞으로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데이터스트림즈는 데이터 통합과 거버넌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융합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두원메디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 홈 헬스케어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아이크로진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질병 예측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참좋은넷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센서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ICT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파인씨엔아이는 데이터 수집·관리, 데이터 추출 및 연계 분석 등 자체 개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기술·정책 자문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체 보유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시켜 광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특히 전문인력 양성 및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가 올해도 인공지능 4대 강국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탄 기자

광주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 본격화

내달 초 대상자 선정

광주시는 2021년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초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2012년 광산구 '행운목 만들기 프로젝트' 등 2개 마을로 시작해 2013년 3개 마을, 2015년부터 10여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13일 "'마을돌봄과 일자리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참여와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돌봄을 강화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공모에 참여한 33개 마을 68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정진탄 기자